

북 압박 속 '평화' 강조...한·미·일 공조 강화

문 대통령 유엔 데뷔 관전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다자 정상외교의 본(本) 무대인 유엔 총회에 데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 안보체제를 위협하는 최대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국 정상인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와 행보를 보이느냐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北 압박하며 '평화 콘서트' 띄우기** = 문 대통령 유엔 데뷔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21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일차적 초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MB)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더 강한 압박'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을 조속히 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충실히 이행하며 일치단결된 공조를 하도록 촉구하는 게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설문 전반을 관통하는 상위개념은 '평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응징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상 과정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소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가 단순히 '안보 이슈'가 아니라 '평화 이슈'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고 이것이 동북아의 울타리를 넘어 전세계 평화구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상회담서 제재 수위 조율... '실효적 제재' 중국 공조 촉구할 듯

◇ **첫 행보는 유엔 사무총장 접견** = 오는 1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의 첫 행보는 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접견이다. 이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안보리와의 별개로 '세계의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한·미·일 '삼각 압박공조' 강화** = 북핵 문제와 맞물린 주요 관전포인트의

하나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세 정상은 이틀이 지난 7월7일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두달여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MB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을 평가하고 현행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공동의 입장표명을 도출해낼 경우 그 상징성과 함께 실효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현 단계에서 가용한 외교·군사적 옵션이 모두 3국

정상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실효적 제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을 상대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방침을 놓고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공산도 있어 보인다. 한·미·일 3자 회담과 맞물려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대북 제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는 이번 회담에 접촉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기자 tuim@연습뉴스



목포 해상케이블카 첫 삽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첫 삽을 떴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신안비치호텔 야외주차장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유달산 서면~고하도까지 3.23km를 잇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목포시 제공>

전일빌딩 리모델링 20일 시민공청회

5·18 당시 헬기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사진)의 5·18기념공간 기본계획설계를 앞두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추진하는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기본계획설계 용역'은 5·18 당시의 헬기 탄흔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10층과 9층 일부 공간을 5·18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5월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용역 추진사항 보고 후 진실규명의 중요한 증거가 될 총탄흔적 및 텍스의 원형보존 방안, 전일빌딩만의 특화된 전시 공간 조성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전일빌딩 9·10층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함께 정

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는 광주도시공사가 맡아 추진한다.

전일빌딩은 광주일보 옛 사옥으로, 광주시가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전일빌딩의 토지(2252㎡)와 건물(2만132㎡)을 매입했다.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0층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춘 전일빌딩은 광주 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바 있다. 시는 전일빌딩 내부부 5·18기념공간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연관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예능영재 발굴 프로젝트 착수

전남예고와 업무협약... 내달 30명 선발

전남도는 학생들의 숨은 예술 재능 발굴을 위해 '예능영재 키움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예술가의 꿈을 포기했던 학생, 농어촌의 교육 환경 때문에 남다른 끼를 숨기고 살았던 학생들에게 재능을 찾아 키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예술고와 업무협약을 통해 예능영재 발굴 프로젝트를 위탁, 본격적인 예능 영재 발굴에 나섰다. 응시 자격, 접수 요령, 선발 방법 등은 전남예술고,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주와 전남·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가

구 소속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 달 중 30명을 선발한다. 전남예술고가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제2차 실기·면접 시험을 거쳐 음악(국악·피아노·성악 등), 미술(한국화·서양화·디자인 등), 무용(한국무용·현대무용 등) 등 3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 선발된 학생은 10~12월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전남예술고에서 전공 실기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이론과 실기 교습을 받는다. 학생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연주회, 작품전시회도 연다. /박정희기자 jwpark@kwangju.co.kr

백악관 "북 문제 막다른 길 봉착...군사 옵션 배제안해"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사적 옵션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군사적 옵션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더욱 철저한 제재 이행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협한 안보(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며 "모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가 경제·외교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대북 전략을 펴고 있으나,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마이웨이' 노선으로 인해 높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경제적 조치와 외교적 접근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다만 이 전진 방식의 다른 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문제를 뒤로 미뤘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함께 회견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을 이어받은 것이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현재 우리는 북한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이미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기자

정부 "대북인도지원 이번주 결정...시기는 상황 보고"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 교류협에 안전으로 올라가면 큰 변동 없이 지원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대북 인도지원의 시기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21일 회의에서 지원 결정만 내린 뒤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국제사회의 대응 상황을 보아가며 실제 지원 시기는 추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7일 참고자료를 통해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중

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원 검토 방침이 발표된 시점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었던데다 발표 다음날인 15일에는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또다시 북태평양 상으로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16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화성-12형 전격화를 선언하며 "(핵무력 완성 목표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언급을 통해 사실상 추가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대북인도지원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연습기자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기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 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제)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복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부산/대구/광주 등의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 임상시험 내용**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최대 35일 동안 매일 1회 1정 복용한 후, 8주동안 매일 임상시험용의약품 1회 3정 복용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입니다.
- 2.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이상지질혈증 동반 고혈압 환자
 - 기관에 방문하시어 측정된 혈압이 합압이 복용 여부에 따른 기준을 만족한 자
 -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250mg/dL 이하인 자
 -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 3. 임상시험 기간**
약 13주~15주 (5회 방문)
- 4. 시험대상자 지원**
시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이 주어집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 임상시험 담당의사 진료비
 -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검사비 제공 (혈액검사, 노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 소정의 교통비

문의처: 070-7462-7478
(상담시간: 오전 9:30~오후 6:30)